

다산포럼



함영대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부교수

조선 후기 실학의 중요한 명제였던 이용후생론은 그 유래가 깊다. 중국 고대의 성왕인 우(禹)가 신하의 신 분으로 순 임금에게 정치의 요체를 말하면서 한 말이다. 옳은 정치는 오직 덕으로만 할 수 있고, 정치의 요점은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 물과 불, 나무, 광물, 흙, 곡식을 잘 운용하여 덕을 바로 잡고(正德), 쓰임을 이롭게 하며(利用), 삶을 풍요롭게 하라(厚生)고 조언했다.

송나라 시대 학자 채침은 생활의 언어로 이를 다시 설명했다. 이를 더면 “정덕은 아버지의 사랑, 자식의 효도, 형제의 우애, 남편의 의로움과 아내의 순종이, 백성의 덕을 바로잡는 것이요, 이용은 공인은 여러 기기를 만들고, 상인은 재화를 소통하는 따위이니, 백성들의 쓰임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며, 후생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는 따위이니,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물·불·나무·광물·흙·곡식을 육부(六府)라 하고, 정덕·이용·후생을 삼사(三事)라고 한다.

2040 칼럼



최철  
YWCA회원 이사·조선대 초빙교수

세계 문화도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페라 극장이 반드시 있다. 짧은 역사를 갖지만 시드니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으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라스 칼라 오페라 극장',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독일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이 이에 속한다.

순수 공연 예술 중 가장 대형 프로젝트이며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오페라는 한 도시의 문화 척도를 바라보는데 대표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유럽을 가면 무어라 적은 도시라도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을 시 중심부에 지어놓고 도시를 뽐내고 있다.

오페라 전용 극장은 오페라 공연이 주목적으로 지어진 공간이지만 발레, 무용,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독창회나 독주회 등 대형 공연 예술이 펼쳐지는 최적화된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음향의 차별화를 내세우며 대형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오페라 전용 극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 극장의 천장은 돔 모양으로 가톨릭 성당의 지붕 모습과 비슷한

기고



김균수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근 광주시가 광주영어방송에 대해 폐지까지 포함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체 경쟁력 하락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영어방송의 폐지, 출연금 중단 또는 축소, 매체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영어방송은 특수방송으로 다른 매체와 경쟁을 할 이유도 못해서 안 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2008년 정부가 영어전문 FM방송 설립을 추진하면서 서울, 부산, 광주 세 곳이 호응했고, 이듬해인 2009년 광주영어방송이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국인들의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개국했다. 가속화되는 글로벌 사회에서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방송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수히 난립한 미디어 환경 속 광주영어방송은 광주시민과 이주인이 함께 키워야할 독립적인 자산으로 여겨야지, 무한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다국어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다국어 방송이 등장했다.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을 생각한다

위정자들이 인민의 삶을 보양(保養)하기 위해 재물을 만들 수 있는 여섯 가지 물질적 요소를 활용하여 덕을 바로잡고, 쓰임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그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논법이지만 정치의 요체는 잘 설명한 셈이다.

구체적인 물질을 지칭하는 육부(六府)와 달리 그 운용을 논의하는 삼사(三事)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일을 조화롭게 시행하는 균형각각이 요청된다. 일반적인 조선 학자들은 정덕이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이고 이용 후생은 그 다스림의 도구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주류였던 시기에 이용후생 이후에 정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연암 박지원의 생각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다. 그는 조선을 벗어나 책문에 이르러 도시의 규모가 매우 일정한 격식이 있는 것을 보고 찬탄하면서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이용(利用)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쓰임을 정예하게 한 후에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삶을 풍요롭게 한 후에 덕(德)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쓰임을 정예하게 하지 못한 채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삶이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덕(德)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시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현실적 삶을 정면으로 응시한 것이다. 정덕이 근본이 아니라 이용(利用)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현실적인 동력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용·후생을 정덕보다 우선시하는 논리가 되었다.

한편 북학파의 기수, 박제가는 정덕을 실현하려면 음당 이용후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체로 이용·후생이 하나라도 뒤쳐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위로 정덕을 그르치게 된다. 그런 까닭에 공자는 ‘넉넉한 뒤에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관중은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정덕을 핵심 가치로 표방한 것이지만 이용후생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상정함으로써 이용후생을 우선시켰다. 하지만 근래 한국 경제학의 연구자 최석기 선생은 ‘조선 후기에는 정덕이 너무 치우쳐 이용후생이 경시되었기 때문에 실학자들이 이용후생을 외친 것이라면 우리 시대는 너무도 이용후생에 치우쳐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우리 시대의 실학은 정덕이다’라고 외친다’고 주장했다. 사실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은 이미 이용후생이 아니지 않은가?

그럼 우리 시대의 정덕은 과연 무엇인가? 위당 정인보는 학술에 대해 “혹 그 근본을 조심스럽게 지키면, 덕을 바르게 하고 사상을 편리하게 하고, 민생을 살기 좋게 할 수 있다. 혹 이와 반대로 하면 백 가지 법도가 균형을 잃게 되며 이것이 오래가고 깊어져 마음이 중독되면 습관이 전성처럼 되어버려 어찌할 수 없게 된다”고 염려했다. 위당이 당대에 걱정했던 것은 주체적 민족 의식이 정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용후생이 아니라 정덕이 우리 시대의 실학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시대에 결맞는 정덕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페라 전용 극장을 향한 열망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입천장처럼 별도의 음향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음을 관객이 온전히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음향학적으로 우수성을 추구하는 건축물로 특별함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각 계층이 함께 모여 사귀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오페라 전용 극장으로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와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국내 최초 단독 오페라 전용 극장으로 유려한 곡선미의 그랜드 피아노를 형상화한 수려한 모습으로 오페라의 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대구는 매년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개최하는데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의 고품질 오페라를 보기 위해 광주의 오페라 팬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애호가들이 공연 일정에 맞추어 대구로 향한다.

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 역시 국내외 최고의 출연진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수많은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근래 공연 예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은 뮤지컬 전용 극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건립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부산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오페라 전용 극장이 문화도시 브랜드로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가일 롯데에서 1000억 원, 정부 지원 1000억 원, 부산시에서 1200억 원을 출자해서 50%의 공영물로 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의 메카로 관광산업과 융합하여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향한 질주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주는 서울 이외의 유일한 시립 오페라단을 보유한 문화도시이지만 역량 있는 작품 제작과 공연마다 매진과 환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용 극장 부재로 인해 아쉬움이 크다.

현재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은 민선 7기에 300억 원을 들여 시작한 극장 리모델링 사업이 공연장의 음향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연주자들이나 관객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의 오페라 전용 극장 건립은 단지 오페라뿐만 아니라 발레 및 다양한 현대 공연 예술을 더욱 품격있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광주 공연예술계에 다 거신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이를 인식한 민선 8기의 과감한 투자를 향한 발걸음에 우리는 설레고 있다. 민선 8기 들어서 문화도시로서 오페라 전용 극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더불어 클래식 전용 극장에 관한 강기정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지원이 현실화하면서, 지역 음악계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연 관람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하나로 모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미술관과 국악 전용 극장처럼 오페라 전용 극장이 있다면 광주 예술의 다양성과 형성, 그리고 광주 예술의 세계화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주시민들의 오페라 전용 극장을 향한 열망과 지지가 민선 8기 문화융성을 위한 발걸음에 더욱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영어방송은 공공재다

도쿄에 처음 다국어 라디오 방송 'Inter FM'이 개국한 건 1996년으로, 외국인 거주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발맞춰 중국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다갈로어, 태국어 등 다국어어 시사 및 문화 소식을 다중언어(multilingual)로 전달했다.

광주영어방송 또한 우리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과 베트남 유입 인구 현상을 고려해 2013년에 중국어 방송, 2017년에 베트남어 방송을 추가하며 다국어 방송 체제로 전환했다. 2021년 3월부터 한국어를 일부 사용하는 이중언어(bilingual) 프로그램도 편성 제작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포용과 확대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이중언어, 즉 우리말과 함께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어를 쓰는 학생들이 늘고 추세에서 영어방송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7만여명에 이르는 이중언어 학생수에서 전남지역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 교육당국 역시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대해 그동안 수용과 동화 위주의 정책에서 개인의 성장을 위한 배려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이 외국인 부모의 언어-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학교나 집 안밖 어디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다중 정체성을 공유하며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의 시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주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포용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방송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셋째, 광주영어방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미안마를 위한 광주행진곡'과 '5·18 특집 프로그램'으로 PD상을 수상했다. 국제교류 차원에서 광주영어방송이 기획한 유튜브 동영상 '안심 광주'가 국영방송 VOV를 통해 베트남 전역에 방송된 적도 있다. 2023년 광주영어방송 평균 청취율은 5.9%로 알려졌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막강한 자본력과 스타 파워를 앞세운 지상파 방송사도 두자리 청취율을 얻기 힘든 현실과 비교해도 의미있는 수치다.

그동안 광주영어방송의 존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진 않았다. 주로 광주영어방송의 본질과는 무관한 정치공학의 발로였지, 공공기관 구조조정 이유로 흔히 언급되는 방안·부실경영에 대한 지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광주시는 “광주영어방송의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 반면, 광주영어방송 측은 “올해 시의 지원 예산이 줄었지만 운영이 심각할 정도는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엇갈리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어방송의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포용과 확대의 도시로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광주시는 영어방송 존재를 논하기보다 어떻게 운영난을 해소할지 지원채부터 고민하는게 상식 아닐까?

하나의 숲을 가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15년 된 광주영어방송의 존재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社說

민주당, 오락가락 기준...시스템 공천 맞나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물이 오락가락 하면서 시스템 공천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총선에선 시스템 공천으로 개혁 공천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적용에선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스템 공천이란 미리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을 함으로써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공천 대상자가 뒤바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비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면접이란 시스템 공천 과정이 있는데도 얼마전 느닷없이 현역 의원 재지정 여부 조사를 벌였다. 또한 탈당 경력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주고 경선 과정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특별 당규에는 탈당 경력자에 대해 25%를 감산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호남지역 3명을 포함해 16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선투표 도입도 처

를 시도하는 것으로 3인 경선 지역에서도 1, 2위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때 적용한다. 두 제도 모두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곧 개별 통보될 예정인 현역의원 하위 20%에 대해서도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정당 입장에서 선거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다. 특히나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선 공인한대로 시스템 공천을 실천하는 것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는 것이다.

오늘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를 시작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다. 물이 오락가락 한다면 아무리 시스템을 통해 공천을 한다고 한들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물을 적용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설 대목에도 불황으로 고통받는 재래시장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에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지역 전통시장 등 유통업계를 점검한 결과 고물가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시장에는 제수용품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평소보다 생기가 들었지만, 정작 상인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남광주시장에서 15년째 굴비를 판매하고 있는 한 상인은 “가격을 묻는 손님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없다. 비싼 가격 때문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 보리굴비 10마리 가격은 10만 원으로 작년 추석 직전 가격인 8만5000원에 비하면 1만5000원이 올랐다. 전통시장 정과를 코너는 뒤틀리기를 맞고 있다.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신선과실은 28.5%나 올라 2011년 1월(31.9%)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과와 배는 1년 전보다 각각 56.8%와 41.2%나 급등했다. 시민들은 평소에

눈여겨 보지 않던 ‘못나고 과일’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서민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시장 경제가 꽁꽁 얼어붙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국민은 삶이 팍팍해질수록 정치권을 바라보지 마라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름을 덜어주는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선거나 맞이 경제 정책을 앞다퉀 쏟아내고 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참 거리가 있다. 오죽하면 자치단체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명절 제수용품 사주기 운동’ 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민생은 구조뿐이고 물밑으로는 오직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금배지를 확보하는데만 매몰돼 있으니 당연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시민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를 쟁겨 서민 시름을 덜어주고 얼어붙은 재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無等鼓

곰팡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한다. 며칠 동안 상온에 방치한 빵이나 다습한 욕실 세면대, 소홀하게 관리한 카메라 렌즈 등에도 어김없이 곰팡이가 핀다.

“물이 같은 냄새가 나.” 2019년 개봉한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에서 냄새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귀퉁이 곰팡이 냄새가 났던 방에서 생활하는 ‘곰팡이 팬데믹’ 또한 상상적으로 드러난다. 영화는 하류층과 상류층의 경계를 냄새로 나눠 극과 극을 대결하게 드러낸다.

신간 ‘곰팡이, 가장 작고 은밀한 파괴자들’ 저자인 독성학자 에밀리 모노선은 “곰팡이는 사회문제다. 곰팡이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유럽을 휩쓴 ‘감자역병’과 바나나 그로 미셀 품종에 치명타를 입힌 ‘파나마병’이다. ‘감자역병’은 난균류(卵菌類)가, ‘파나마병’은 레이스-1이라는 곰팡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력을 앞세워 단일품종을 재배했기 때문이었다. “개체군내의 유전적 다양성’이 무엇보다 중

요함을 보여준다. 저자는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다양한 맛을 지닌 여러 변종의 밀·채소·바나나를 재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곰팡이 병원체의 출현을 가능케 했고 진단한다. 곰팡이가 일으킨 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곰팡이 팬데믹’ 또한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다. 곰팡이 역시 진화하고 있다. 곰팡이는 인간의 체온에서 살 수 없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라 ‘칸디다 아우리스’(‘귀 곰팡이’라는 의미)처럼 귤속에서 생존하는 신종 곰팡이 병원체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곰팡이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발효식품이나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를 제공하지만 바나나·소나무·박쥐·개구리 등 특정 생명체를 절멸시키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하는 곰팡이가 인류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면 재난은 억측일까. 결국 전 세계적인 새로운 곰팡이 병원체 출현 여부는 ‘지구별’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송기웅 예방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